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박 현 주[†]

김 봉 환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부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은 각각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인문계 남녀고등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독립검사, 진로 결정수준검사,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독립수준은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심리적 독립수준 중 하위차원인 갈등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넷째,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은 하위차원별로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 학년에 따라 다른 특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에서 이와 같은 변인들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진단과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진로미결정과 진로준비행동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고려해야함을 함의하고 있다.

주요어 :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 교신저자 : 박현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E-mail : benign-33@hanmail.net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해야하며, 더욱 전문화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탐색하며, 본인의 진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에게는 자율성,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및 정서적 조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로부터 자신을 점차로 분화시켜가고 어느 정도의 자기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Rice, 1992).

Blos(1979)에 의하면 건강한 심리적 독립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적인 발달과제로서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행동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 확신 있는 직업의 선택이나 준비,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이후의 발달과제 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시기에 심리적 독립을 못 이루고 주체적인 합리적 진로결정을 못한다면 졸업 후 부적응의 문제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진로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중 Sprinthal 과 Mosher(1969)는 진로결정의 주체가 청소년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즉,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완전한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얼마든지 어른들의 보이지 않는 의도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완성, 2002, 재인용). Gati 등(1996)도 진로미결정의 문제 중 하나로 '내적인 갈등'과 함께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

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사이에서 오는 불일치 등과 관련된 '외적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학(199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선택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며, 더불어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과 주체성이 부족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이 부모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성적위주의 진로선택이나 부모와 교사의 가치기준에 의한 진로결정을 하고 있다. 미술대, 교육대, 사범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진로결정수준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김봉환, 1997; 김희진, 2001)는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행동에 부모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오래전부터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이론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에 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최동선, 2003).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도 진로 미결정과 진로준비행동부족의 원인을 가족변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에서 찾고 있다. 더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고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김진희, 1999; 맹영임, 2002; 박수길, 2000; 이득연, 2004; Blustein et al., 1991;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O'Brien, 1996; Tokar et al., 2003)은 진로문제를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볼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족변인의 측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행동과 그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규정하는 특성과 개인 자신이 지닌 특성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개인 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인간속성중의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성차이다. 일반적으로 성차는 개인이 처한 배경환경과 개인자신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발달 주요과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고등학교 시기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진로지도와 상담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차별적인 진단과 상담의 개입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고향자, 1992; 김봉환, 1997; 김은영, 1993; 김은진, 2000; 김희진, 2001; 맹영임, 2002; 문승태, 2002; 박수길, 2000; 박완성, 2002; 정은희, 1993; Guerra & Braungart-Rieker, 1999; Lopez & Gover, 1993; Lucas, 1997).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공통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초기연구는 진로결정자들과 진로미결정자들이 능력, 흥미, 성격

특성 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진로미결정 연구(Gati et al., 1996; Lucas, 1997)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질적인 진로미결정의 하위 유형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결정문제를 분류하려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관하여 개인마다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가 가능하고 개입의 성과 평가에도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해야 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지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과 더불어 진로목표를 위해 기본적인 능력을 쌓는 행동, 그리고 진로목표에 입문하기 위한 행동 등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상담에서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된 문제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나타냈며(박완성, 2002), 대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봉환, 1997; 최동선, 2003). 이렇게 낮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이나 지도에서 행동적 요소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로준비행동과 심리적 독립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완성, 2002; Blustein et al., 1991; Scott & Church, 2001). 그러나 이희영(1999)은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도의 준비성 차원과의 관계는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득연(2004)도 진로미결정집단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탐색행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시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또는 부적으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동안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다가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취업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갑자기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 이때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한 학생들은 부정적응이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앞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고등학교시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는 시기이므로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의 문제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연관 지어 연구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진로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며, 이는 진로미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심리적 독립수준,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1개 인문계고등학교와 인천시 소재 2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총 412명이 표집되었다. 가급적 학년과 성별이 고루 포함되도록 표집하였으며, 총 표집인원은 남학생이 210명(51%)이고 여학생은 202명(49%)이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 136명(33%), 2학년 143명(35%), 3학년 133명(32%)이다.

연구도구

심리적 독립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검사를 정은희(1993)가 번역하여 총 138문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한 112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는 문항의 반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것을 측정하며 나머지 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네 가지 하위 척도 즉,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독립(26문항)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을 측정하며, 태도적 독립(26문항)은 부모와 다른 독특한 스스로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적 독립(20문항)은 부모의 승인, 감정의 지지,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갈등적 독립(40문항)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잘 되어 있는 것이므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독립 검사의 Cronbach α 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 .78-.80,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77-.83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검사(CDS; Career Decision Scale)

진로결정수준검사는 Osipow 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절한 문장으로 변안한 것으로써,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질문인 19번을 제외하고 진로선택확신성을 나타내는 1-2번과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3-18번의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수준 검사의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rvey)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완성(2002)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존의 진로탐색행동이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도구들, 즉 Stumpf, Colarelli 및 Hartman(1983)의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Kopelman, Rovenpor 및 Millsap(1992)의 Job Search Behavior Index(JSBI),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이 검사는 총 22문항으로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요인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네 개의 하위요인은 진로탐색활동(10문항), 정보수집활동(5문항), 직업체험활동(5문항), 취업준비활동(2문항)이다.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Cronbach α 에 의한 검사 신뢰도는 .75-.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검사의 실시는 먼저 표집대상이 되는 학교별로 검사협조자를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각 학교별로 상담이나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검사는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사실시에 관한 표준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2005년 4월 4

일부 4월 16일 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검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검사자료들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SAS 9.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년에 따라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에 의한 F-검증을 실시하고,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심리적 독립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모든 하위차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표 1 참조).

학년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부 및 모 모두에서 2학년, 1학년, 3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부 및 모 모두에서 갈등적 독립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2 참조).

내지 않았다(표 2 참조).

심리적 독립수준의 학년별 차이 Duncan 검증결과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은 2학년과 1학년이 동질집단(A)으로, 3학년(B)은 이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2학년(A)과 3학년(B)은 이질집단으로 나타났고, 1학년(B A)은 2학년(A)과도 동질집단을 이루고 3학년(B)과도 동질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은 2학년과 1학년이 동질집단(A)으로, 3학년(B)은 이질집단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은 2학년(A)과 3학년(B)은 이질집단으로 나타났고, 1학년(B A)은 2학년(A)과도 동질집단을 이루고 3학년(B)과도 동질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분석결과 하위차원에서 진로확신만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표 4 참조). 진로확신의 학년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Duncan 검증을 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차이를 알아보면 3학년(A)과 1학년(B)은 이질집단으로 나타났고, 2학년(B A)은 3학년(A)과 동질집단으로 1학년(B)과도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표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수준의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어 머 니	기능적독립	남	210	42.44	8.52	-3.01**
		여	202	39.82	9.18	
	태도적독립	남	210	39.69	9.18	-2.58**
		여	202	37.40	8.83	
	정서적독립	남	210	28.71	7.09	-5.21***
		여	202	24.90	7.71	
	갈등적독립	남	210	63.80	11.12	-2.00*
		여	202	61.60	11.22	
	심리적독립수준	남	210	174.64	27.37	-4.09***
		여	202	163.72	26.89	
아 버 지	기능적독립	남	210	43.93	8.76	0.38
		여	202	44.27	9.54	
	태도적독립	남	210	40.75	8.63	-0.67
		여	202	40.16	9.37	
	정서적독립	남	210	29.49	7.05	-1.50
		여	202	28.33	8.51	
	갈등적독립	남	210	62.91	10.77	-1.36
		여	202	61.32	12.88	
	심리적독립수준	남	210	177.08	25.55	-1.09
		여	202	174.08	29.93	

* $P < .05$ ** $P < .01$ *** $P < .001$

러나 하위차원에서 정보수집활동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차원인 정보수집활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5, 6 참조). 정보수집활동의 학년차이 Duncan 검증 결과 3학년(A)과 2학년(A)은 동질집단으로, 1학년(B)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2. 학년에 따른 심리적 독립수준의 차이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어 머 니	기능적독립	1	37.43	8.21	5.40**	
		2	38.17	9.07		
		3	34.82	9.21		
	태도적독립	1	136	40.13	8.42	5.76**
		2	143	40.76	9.36	
		3	133	37.29	9.07	
	정서적독립	1	136	32.98	7.10	3.72*
		2	143	34.44	7.69	
		3	133	31.97	7.94	
갈등적독립	1	136	57.65	10.15	0.26	
	2	143	57.46	11.36		
	3	133	56.71	12.10		
심리적독립수준	1	136	168.18	24.03	4.91**	
	2	143	170.83	27.98		
	3	133	160.80	29.86		
아 버 지	기능적독립	1	136	34.33	8.90	4.19*
		2	143	35.17	8.87	
		3	133	32.10	9.44	
	태도적독립	1	136	38.00	8.94	2.12
		2	143	38.31	8.47	
		3	133	36.23	9.49	
	정서적독립	1	136	30.96	7.10	3.66*
		2	143	32.35	7.69	
		3	133	29.83	7.60	
갈등적독립	1	136	58.04	11.70	0.04	
	2	143	57.92	11.60		
	3	133	57.65	12.43		
심리적독립수준	1	136	161.34	27.18	2.97*	
	2	143	163.75	26.95		
	3	133	155.80	28.86		

* $P < .05$ ** $P < .01$

표 3. 심리적 독립수준의 학년별 차이 Duncan 검증

	어머니				아버지			
	집단	평균	사례수	학년	집단	평균	사례수	학년
기능적독립	A	38.2	143	2	A	35.2	143	2
	A	37.4	136	1	A	34.3	136	1
	B	34.8	133	3	B	32.1	133	3
태도적독립	A	40.8	143	2	A	38.3	143	2
	A	40.1	136	1	A	38.0	136	1
	B	37.2	133	3	A	36.2	133	3
정서적독립	A	34.4	143	2	A	32.3	143	2
	B A	33.0	136	1	B A	31.0	136	1
	B	32.0	133	3	B	29.8	133	3
심리적독립수준	A	170.8	143	2	A	163.8	143	2
	A	168.2	136	1	B A	161.3	136	1
	B	160.8	133	3	B	155.8	133	3

표 4.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확신	1	136	4.85	1.61	5.22**
	2	143	5.22	1.65	
	3	133	5.48	1.53	
진로결정	1	136	37.96	10.12	1.18
	2	143	38.24	10.30	
	3	133	36.49	9.82	
진로결정수준	1	136	42.81	10.03	1.73
	2	143	43.46	10.14	
	3	133	41.97	9.59	

** $P < .01$

표 5.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진로탐색활동	남	210	19.08	5.98	0.26
	여	202	19.23	5.77	
정보수집활동	남	210	13.41	3.34	1.60*
	여	202	13.95	3.52	
직업체험활동	남	210	9.20	3.56	-1.42
	여	202	8.70	3.63	
취업준비활동	남	210	3.64	1.85	-0.08
	여	202	3.62	1.80	
진로준비행동수준	남	210	45.32	12.12	0.15
	여	202	45.50	12.20	

* $P < .05$

표 6.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차이

	학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진로탐색활동	1	136	18.71	5.90	1.22
	2	143	18.99	5.74	
	3	133	19.79	5.98	
정보수집활동	1	136	12.85	3.56	6.63**
	2	143	13.83	3.07	
	3	133	14.33	3.54	
직업체험활동	1	136	8.82	3.70	0.26
	2	143	8.90	3.59	
	3	133	9.13	3.53	
취업준비활동	1	136	3.74	1.78	0.36
	2	143	3.55	1.95	
	3	133	3.60	1.72	
진로준비행동수준	1	136	44.12	12.56	1.73
	2	143	45.28	11.52	
	3	133	46.88	12.29	

** $P < .01$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확신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표 7 참조). 심리적 독립수준의 하위차원 중 정서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과 의미 있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만 하위차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1학년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

의 기능적, 태도적 독립이 진로확신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표 8 참조).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매우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남학생의 경우만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적 독립

표. 7.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심리적독립수준	
	진로확신	남	-.04	-.06	-.01	.06	-.01
		여	-.15*	-.18**	-.09	-.03	-.15*
		전체	-.10*	-.12*	-.06	.01	-.08
어	진로결정	남	.07	.06	.07	.00	.10
		여	.01	-.01	.07	.09	.06
		전체	.03	.03	.06	.10*	.08
니	진로결정수준	남	.06	.05	.07	.12	.10
		여	-.02	-.04	.06	.08	.03
		전체	.02	.01	.05	.10*	.06
아	진로확신	남	-.08	-.07	-.05	.04	-.05
		여	-.13	-.14*	-.03	.02	-.08
		전체	-.10*	-.10*	-.04	.02	-.07
비	진로결정	남	.05	.05	.07	.16	.12
		여	-.07	-.04	.01	.11	.01
		전체	-.01	.01	.03	.13**	.06
지	진로결정수준	남	.04	.04	.06	.17*	.11
		여	-.09	-.05	-.01	.10	-.01
		전체	-.02	-.01	.02	.13**	.05

* P < .05 ** P < .01

표 8. 학년에 따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심리적독립수준
어 머 니	진로확신	1	-.25**	-.24**	-.17*	.15
		2	-.08	-.14	.02	.07
		3	-.03	-.04	-.06	-.06
	진로결정	1	-.03	-.07	.01	.14
		2	-.03	-.07	.01	.07
		3	.12	.15	.13	.02
진로결정수준	1	-.06	-.07	.01	.24**	
	2	-.04	-.08	.01	.06	
	3	.11	.13	.11	.18	
아 비 지	진로확신	1	-.23**	-.21*	-.11	.11
		2	-.07	-.13	.01	-.02
		3	-.05	-.02	-.05	-.03
	진로결정	1	-.04	-.01	.01	.20*
		2	.01	-.04	.07	.10
		3	-.03	.05	-.01	.09
진로결정수준	1	-.08	-.04	-.01	.21**	
	2	-.01	-.05	.06	.09	
	3	-.04	.04	-.01	.07	

* $P < .05$ ** $P < .01$

수준의 하위차원별로 보면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수준과 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갈등적 독립은 상대적으로 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수준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진로준비행동수준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남학생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서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표 9 참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2학년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3학년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간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심리적 독립수준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2학년은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독립

표 9.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심리적독립수준	
	진로탐색활동	남	-.21**	-.21**	-.18**	-.07	-.21**
		여	-.20**	-.19**	-.17**	-.15*	-.24***
		전체	-.20***	-.20***	-.18***	-.11*	-.23***
	정보수집활동	남	-.14*	-.09	-.03	-.07	-.11
		여	-.22**	-.19**	-.17**	-.14*	-.25***
		전체	-.19***	-.15**	-.12**	-.11*	-.19***
어 머 니	직업체험활동	남	-.12	-.13*	-.07	-.09	-.08
		여	-.14*	-.13	-.10	-.06	-.15*
		전체	-.12*	-.12**	-.07	-.01	-.10*
	취업준비활동	남	-.10	-.06	.02	-.09	-.08
		여	-.03	.00	-.04	-.07	-.05
		전체	-.06	-.03	-.01	-.08	-.07
	진로준비행동수준	남	-.19**	-.18**	-.12	-.06	-.17**
		여	-.20**	-.19**	-.17**	-.14*	-.24***
		전체	-.20***	-.18***	-.14**	-.10*	-.20***
	진로탐색활동	남	-.17**	-.15*	-.13	-.02	-.15*
		여	-.06	-.09	-.06	-.08	-.10
		전체	-.12*	-.12**	-.09	-.05	-.13**
	정보수집활동	남	-.15*	-.03	-.07	-.01	-.08
		여	-.04	-.05	.03	.05	.01
		전체	-.09	-.04	-.02	.02	-.04
아 비 지	직업체험활동	남	-.16*	-.13*	-.01	.07	-.01
		여	.02	-.01	.06	-.06	-.01
		전체	-.07	-.07	-.01	.01	-.05
	취업준비활동	남	-.07	-.05	.03	-.05	-.06
		여	.06	.02	.05	-.07	.01
		전체	-.10*	-.09	-.05	-.03	-.09
	진로준비행동수준	남	-.18**	-.13	-.11	-.01	-.14*
		여	-.03	-.06	.01	-.05	-.05
		전체	-.10*	-.09	-.05	-.03	-.09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학년에 따른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기능적독립	태도적독립	정서적독립	갈등적독립	심리적독립수준	
어 머 니	진로탐색행동	1	-.19*	-.15	-.18*	.10	-.13
		2	-.19*	-.22**	-.15	-.12	-.22**
		3	-.27**	-.28***	-.23**	-.29***	-.35***
	정보수집활동	1	-.29***	-.18*	-.19*	.03	-.21*
		2	-.21**	-.16	-.01	-.17*	-.19*
		3	-.15	-.19*	-.18*	-.21*	-.23**
	직업체험활동	1	-.22**	-.13	-.17*	.22**	-.08
		2	-.12	-.16	-.08	-.04	-.13
		3	-.04	-.10	.02	-.16	-.10
취업준비활동	1	-.10	.02	-.04	.07	-.01	
	2	-.08	-.06	-.01	-.11	-.09	
	3	-.01	-.04	.02	-.19*	-.08	
진로준비행동수준	1	-.25**	-.16	-.20*	.13	-.14	
	2	-.20*	-.21**	-.10	-.13	-.22**	
	3	-.19*	-.22**	-.15	-.27***	-.28***	
아 비 지	진로탐색행동	1	-.15	-.16	-.15	.01	-.14
		2	-.20*	-.27***	-.16*	-.12	-.25**
		3	-.04	.02	.02	-.05	-.03
	정보수집활동	1	-.26**	-.19*	-.18*	.01	-.19*
		2	-.09	-.04	.04	-.01	-.02
		3	.02	.07	.06	.04	.06
	직업체험활동	1	-.13	-.11	-.08	.03	-.09
		2	-.13	-.15	-.08	-.06	-.14
		3	.03	.05	.14	.04	.08
취업준비활동	1	.01	.03	.07	-.04	.02	
	2	-.08	-.10	-.04	-.12	-.12	
	3	.07	.04	.13	-.03	.06	
진로준비행동수준	1	-.08*	-.16	-.14	.01	-.14	
	2	-.17*	-.21**	-.10	-.10	-.20*	
	3	.01	.05	.09	-.01	.03	

* $P < .05$ ** $P < .01$ *** $P < .001$

이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3학년은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갈등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표 10 참조).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설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발달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Blos(1967)의 이론과 심리적 독립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보면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이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모든 하위차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영(1993), 맹영임(2002), 정은희(1993), Lopez와 Gover(1993), Lucas(199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머니의 태도, 가치 및 인정이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남학생에게는 자립심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여학생에게는 순종이 강조되어지는 현실에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대하는 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학년별로 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은 부모 모두에서 2학년, 1학년, 3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독립감이 높아진다는 김은영(1993), 정은희(1993)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 독립수준이 발달되다가 3학년이 되어 대학입학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불안감과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진로 같은 큰 문제를 앞두고는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에서 갈등적 독립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부담감, 책임감,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기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독립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대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고등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는 고향자(1992), 김진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

정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진, 2000; 맹영임, 2002; 박수길, 2000)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문승태,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에서의 성별에 따른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차원인 진로확신에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점차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진로에 확신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보다는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는 현실로 인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성차가 없다고 한 박완성(2002), 김희진(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진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아진다는 김봉환(1997), 박완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이 인문계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취업과 관련된 준비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과 갈등적 독립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차원인 진로확신은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희(1999), 박수길(2000) 맹영임(2002), 이득연(2004), Lucas(1997), O' Brien(1996), Tokar 등(200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확신하는데 있어서는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신념, 가치관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 불안, 불신, 억제, 후회,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을 하는 데 있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조언의 영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미결정 학생을 상담하거나 지도를 할 때에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수준을 알아보고,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여학생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확신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고, 여학생은 어머니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에 의존할수록 진로확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만 부·모로부터

터의 갈등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태도적 독립과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진로확신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Guerra 와 Braungart-Rieker(199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수용이 낮고 학년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도의 정체감 유에 및 혼란을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학년은 진로를 확신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과 조언, 신념과 가치관, 어머니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며,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불만, 불신, 분노, 죄책감, 책임감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때는 부모를 구분하고 하위차원에 따라 성별, 학년 같은 상황적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진로상담 시 부·모와 관련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하고 있다. 즉,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갈등적 독립이 고려되고, 진로확신과 관련하여서는 기능적, 태도적 독립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및 지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다섯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득연(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심리적 독립과 진로성숙의 준비성차원과의 관계가 부적상관이라고 보고한 이희영(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은 사람이 진로준비행동도 높다는 박완성(2002)의 연구결과와 진로탐색 및 수행과정이 갈등적 독립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Blustein 등(199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탐색과 성취과정에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Scott 와 Church(2001)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 연구들이 심리적 독립수준의 네 가지 하위차원 중 갈등적 독립만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수준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일관된 심리적 독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심리적 독립수준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모두 고려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만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신념이나 가치관, 인정이나 지지에 의존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만, 죄책감, 책임감, 분노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수록 진로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학생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조언, 신념이나 가치관에도 의존하고 어머니의 인정이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어머니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움과 조언, 신념과 가치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만, 죄책감, 책임감, 분노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보다는 어머니로부터의 인정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시와 같은 외적요인에 의존하는 성향이 클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을 수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치관이나 태도가 어머니와 일치하고,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이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에게 순응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 자신과 외부환경을 새롭게 탐색하며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부모와의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과도한 죄책감과 책임감, 불신감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감정은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받기위해 어머니의 가치관과 태도,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에

순응하게 되다보니 진로준비행동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의 적대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라는 재인식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진로상담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하위차원별로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으므로 진로상담 시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수준과 함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수준을 하위차원까지 알아보고 각각의 수준을 고려한 통합적이며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가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진로상담 시 부·모를 구분하여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차별적인 진단과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보다 심도 있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독립과 함께 애착과 친밀감 등을 별도로 변인으로 다루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의 진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변인만 살펴보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변인들과의 관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된 심리적 독립검사와 진로결정수준 검사는 외국에서 제작된 검사로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검사이지만 기준자료가 없고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질문지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들의 반응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연구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진로상담을 통한 중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천과 경기도지역의 인문계고등학생들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폭넓은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복연구나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목적 학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간의 차이를 보는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 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영 (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진 (2000).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맹영임 (2002).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문승태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수길 (2000).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 변인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이희영 (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분리 및 애착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39-259.
-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identity formation and relationship facto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255-266.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Lopez, F. G. & Gover, M. R. (1993). Self-report measures of parent adolescent attach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A selective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560-569.
-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 O' 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98-307.
- Scott, D. J. & Church, A. T. (2001). Separation/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28-347.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원고접수일 : 2005.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 22

게재결정일 : 2006. 3. 8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Hyun-Joo Park

Bong-Wha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varied depending on the students' gender and grades. Second,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ir gender and grades. Third, conflicting independence, a subscale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Finally,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reer counseling and guidance programs are called for to strengthe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or students who experience hardships with their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psychologic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